

장경연구 '고려대장경 해제' 6권 발간

1847종 경전 체계적 정리

방대한 불전들을 색인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고려대장경 해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간됐다.

불교서지 연구자료 '가치' 한글음순 배열로 찾기 쉬워

21일 길상사서 출판기념법회



이길용씨 창작집 '사랑의 그림자들...'



문화관광부 총무실장이자 작가인 이길용씨(57)가 펴낸 <사랑의 그림자들>은 표제작을 비롯해 '통일 수도 만들기' '꽃배' 등 6편의 단편 소설과 '거북선이 돌아라' '성성(城) 돌기' 등 4편의 희곡을 묶은 창작집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심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고, 자본주의적 사고보다 위에 있는 휴머니즘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 모두가 통일로 가기 위해 한민족이 드러내야 할 민족성을 외친다.

통일을 위해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분단 이후의 문제점과 그 해결과정을 통해 짚어낸 '통일수도 만들기'나, 분단 현실이 개인의 인간성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제시한 '사랑의 그림자들'을 저술에 담는 통일의 희망과 분단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4편의 희곡에는 예술적 구현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성성 돌기'가 세 집인의 갈등을 통해 우리 시대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의 이점표를 제시했다면, '거북선이 돌아라'에서는 역사적 인물 대비를 통해 조국의 앞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이 작품은 오는 12월 이순신 장군 서거 4백주년 기념 공연으로 펼쳐진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해외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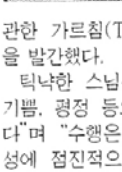
분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



공심(空心)으로 분별심을 다스리고 불이(不二)의 사회관을 피력한 책이 출간됐다. 정신의 학자이자 불자인 마크 엡스테인이 발간한 <분별을 넘어 하나가 되는 것>(Going to Pieces Without Falling Apart)은 우리의 주변에서 세간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부모와 아이 그리고 연인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경험 속에서 분별의 벽을 넘어선 순간을 각 장에 담아 놓았다.

엡스테인은 "행복이란 정신적 심리적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Broadway Books刊, pp. 200.

사랑에 관한 가르침



평화운동가 티낙한 스님이 사성제, 광등 등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사랑'을 주제로 한 것들을 모아 쉽게 풀이한 책 <사랑에 관한 가르침>(Teachings on Love)을 발간했다.

티낙한 스님은 "부처님은 자비, 기쁨, 평정 등으로 사랑을 가르쳤다"며 "수행은 우리가 내면의 불성에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며 유·무정함과 같은 연관성도 깨닫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Paperback刊, pp. 156.

티벳불교회화집성

티벳불교미술 중 '탕카(THANGKA)'로 일컬어지는 표구회화 작품 1백점을 수록한 <티벳 불교 회화집성(繪畫集成)> 제1권이 나왔다. 특히 이번 <티벳 불교 회화집성>에 수록된 작품은 한국 한빛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소장 작품 3백여점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작품만을 선별, 종파와 의식에 종속되지 않고 고려해 수록했다. 다나카 키미야키(田中公明)編/입천서정(臨川書社)刊.

가장 큰 특징은 고려대장경을 구성하고 있는 1,847종의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장경 분류 해설서로, 내용보다는 다른 경전과의 관계 및 용어 등 서지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일본의 <불사대사전>이나 북한의 <팔만대장경 해제>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훨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불교와 문화' 가을호

대한불교진흥원이 발간하는 계간지 <불교와 문화> 98년 가을호(제7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김중서 박사(서울대 명예교수)의 '21세기를 대응하는 불교교육'에 대한 지상강연과 함께 불교계 재정의 투명성을 위한 스님과 교수 등 6인의 제언을 특집으로 다뤘다.

이밖에도 종교평화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값 8천원.

우리는 본래 진아일뿐

대성스님 번역 '진아여여'

1950년 입적하기까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행자였던 스리 라마나 마하리쉬. 그는 끊임없이 '나'의 근원 탐구를 주장했으며, 우리는 본래 진아(眞我)일 뿐이며 그것은 누구나 항상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데이비드 가드먼이 편역하고 대성스님(길상사)이 우리말로 옮긴 <진아여여(眞我如如)>(자기탐구회刊)는 스리 라마나의 이같은 가르침을 그대로 담은 책이다. 스리 라마나의 가르침의 궁극은 해탈에 있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탐구'라는 수행법을 통해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 권한다. 그의 가르침의 특질은 근기에 맞게 이해시키려 했다. 점,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하면 먼저 수준 높은 가르침으로 진리를 이해시키려고 시도해보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답변의 정도를 낮추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그의 가르침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제시돼 있으며, 진아 스승 명상 삼매 업고 통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각 주제마다 첫머리에 입문적인 설명을 해놓았으며, 각 장마다 다른 주제들을 계속 이어지는 대화체로 꾸며 지속적인 이해를 도왔다.

발행처인 자기탐구회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무료로 배포한다. 비매품. (02)762-6021 한명우 기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여시야 편집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est-selling books.

구입문의: (02)737-0695

길 없는 길에 서다

이두스님의 지음

한편에 담은 승려시인 14인의 시

떠남과 버림, 그리고 시. 청정한 가슴과 서정의 세계는 세속을 벗고 해탈을 꿈꾼다. 이두·성우·정화·현담·수완스님 등 14인 전문승려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시집 <길 없는 길에 서다>에는 스님조차도 떠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언어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다. 무엇을, 누구를 향한 기다림인가.

존재란 근원적으로 억압이요 굴레다. 그래서 존재의 파괴는 곧 근원적인 자유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시집에 남아있는 언어들은 근원적 자유를 향해 떠나고 소리친다. 통일문제를 비롯한 현실비판의식과 존재론적 세계, 깨달음의 세계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 <삼양, 7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람의 한평생...

원광광 지음

신라 화랑도의 실천덕목인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광법사. 열반에 들기 전 제자와의 대화 한토막. "사람의 한 평생은 알고 보면 한 토막 꿈과 같은 것. 그 꿈속에서 부자가 될든 무슨 소용이며, 천하를 호령할든 무슨 소용이라. 깨고 보면 모두가 꿈인 것..." "하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옵니가 스님?" "착한 일, 좋은 일 하는 데 게으르지 마라. 좋은 일만 하기에 인생은 짧으니라"

<사람의 한 평생 한 토막 꿈이로다>는 원광법사의 삶과 사상을 재구성한 일대기로 저자가 쓴 고승열전 시리즈의 스물 한 번째, 스님의 구도적 삶과 후학의 지가 잘 드러나 있다. <언문문화,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교가 워길래

건강한 종교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 종교는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비중을 차지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 여러 종교들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건강한 종교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종교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것을 외치며 성철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들의 삶의 행적을 뒤따라가 보자고 외친다.

이 책은 이런 고민과 생각을 담아 교계신문을 비롯한 각종매체에 실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불자로서 불교에 대해 놓은 일침도 따깝게 느껴진다. <불교추사, 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타 큰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礙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광로법문

일타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3,5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세사 때의 기도' 등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큰스님.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큰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시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요리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